도쿄올림픽 정상 개최 우려 속 IOC 강행 의지

"6월까지 선수 선발 마치면 문제 없어"
국제경기연맹 대표자들과 화상회의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등 참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세계태평로연맹 회의실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화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 확산에도 넉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20 도쿄올림픽의 정상적인 개최 의지를 재확인했다.

IOC는 6월 30일까지 선수 선발을 마친다면 7월 개막하는 도쿄올림픽 개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OC는 17일 오후(한국시간)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주재로 종목별 국제경기연맹 대표자들과 화상 회의를 열었다.

종목별 예선 진행 상황 등을 비롯한 도쿄올림픽 개최 준비와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기존 28개 하계올림픽 종목과 도쿄올림픽에 새로 추가된 5개 종목을 더해 33개 종목 국제연맹 대표들이 참여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제연맹 수장인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도 함께했다.

IOC는 이날 국제연맹 대표자들을 시작으로 18일 IOC 선수위원, 18~19일 각국 올림픽위원회(NOC) 위원장과 차례로 화상 회의를 하면서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시아권 NOC 수장들은 19일 IOC와 회의를 한다. IOC가 이같이 긴급 화상 회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원 총재에 이어 IOC 선수위원인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과 IOC 위원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IOC와의 화상 회의에 나선다.

국제보건기구(WHO)가 지난 12일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가운데 세계 스포츠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연기되거나 아예 취소되는 대회가 속출하고, 특히 종목별 도쿄올림픽 예선도 제때 치러지지 못해 올림픽의 정상적인 개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1시간 40분 가량 이어진 이날 국제연맹 대표들과의 회의에서 IOC는 올림픽 정상 개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회의는 바흐 위원장이 IOC의 방향을 제시한 뒤 33개 종목 국제연맹이 종목별 현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조정원 총재는 회의 후 "바흐 IOC 위원장이 전례없는 위기에도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강한 확신을 표명하면서 각 연맹에도 유니티(Unity·통합)를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갑작스러운 결정이나 추측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조 총재는 "IOC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쿄올림픽 전체 종목에서 57% 선수가 선발된 상태다. IOC는 6월 30일까지만 선수 선발이 완료되면 올림픽 준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연맹도 선발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변수를 맞이하고 있으나 6월 30일까지 선발전을 마치도록 주력할 것이고, IOC의 리더십 아래 단합된 모습을 보이며 성공적인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 애쓰겠다고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조 총재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림픽 취소나 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면서 '6월 말까지 선발전을 치르지 못할 경우 대안에 대한 얘기는 있었나'라는 물음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즌 두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도 연기

남녀 US오픈 1차 예선 모두 취소

5월 열릴 예정이던 시즌 두 번째 메이저 골프대회 PGA 챔피언십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피해 가지 못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는 5월 14일부터 나흘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TPC 하딩 파크에서 개최 예정이던 PGA 챔피언십의 연기와 함께 5월 개최하려던 4개 정규 투어의 취소를 18일 공식 발표했다.

PGA 챔피언십은 PGA 투어가 미국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와 함께 주최하는 대회다. 4월 9일 예정이던 마스터스 토너먼트에 이어 메이저대회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와 함께 RBC 헤리티지, 취리히 클래식, 웰스파고 챔피언십, AT&T 바이런 넬슨까지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4개 대회가 추가로 취소됐다.

이에 앞서 PGA 투어는 지난주 1라운드가 끝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을 취소한 데 이어 발스파 챔피언십 등 3개 대회를 취소하고, 코랄레스 푼타카나 챔피언십을 연기했다.

또 다른 남녀 메이저 대회 US오픈과 US여자오픈도 일정 차질이 예상된다.

이 대회를 주최하는 미국골프협회(USGA)는 4월 27일부터 미국과 캐나다 109개 지역에서 시작되는 US오픈 1차 예선을 모두 취소했다.

또 4월 21일부터 미국과 한국, 일본 등에서 치러질 예정이던 US여자오픈 1차 예선도 모두 취소됐다.

이에 따라 6월 18일 미국 뉴욕주에서 열릴 예정인 US오픈과 6월 4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열릴 예정인 US여자오픈의 일정도 큰 영향을 받게 됐다.

USGA는 또 4월 예정이던 US여자아마추어 포볼 챔피언십, 5월 예정이던 US아마추어 포볼 챔피언십도 취소했다. /연합뉴스

올림픽 정상 개최 추진에 메달리스트들 "무책임" 비난

"코로나19 대유행에도 같은 말만 반복…플랜 B 내놔라" 촉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17일(한국시간) 2020 도쿄올림픽을 정상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무책임한 태도라고 반발했다.

18일 AP통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출신 IOC 위원인 헤일리 웨켄하이저는 즉각 "상황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책임하다"고 트위터에서 날을 세웠다.

그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훈련 시설이 문을 닫고,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지역별 예선 대회가 연기됨에 따라 선수들은 당장 내일 어디에서 훈련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했다.

이어 관객들은 세계 각국의 여행 및 입국 제한 조처로 이동할 수 없고, 올림픽 후원사들은 어떠한 감성적인 마케팅도 펼칠 수 없다며 지금 상황에선 선수들이 올림픽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이스하키와 소프트볼 캐나다 대표 선수로 뛴 위켄하이저는 아이스하키 종목에서만 4번이나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2014년 IOC 위원으로 선출됐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육상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그리스의 카테리나 스테파니디도 IOC가 엘리트 체육 선수들의 건강을 위험에 노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스테파니디는 12일 그리스에서 채화된 도쿄올림픽 성화의 그리스 봉송 마지막 주자였다. 그리스 내 성화 봉송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13일 중단됐다.

스테파니디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에도 IOC가 도쿄올림픽 연기나 취소 결정 대신 선수들에게 계속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라고만 한다"며 "도쿄올림픽이 열리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플랜 B가 무엇이냐"며 대안을 내놓으라고 IOC를 압박했다.

세계육상연맹 선수 위원이기도 한 스테파니디는 "1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나빠졌는데도 IOC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안을 알고 훈련하는 것과 모르고 대회를 준비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에 스테파니디의 견해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LPGA 문 닫자 미니투어로

노르드크비스트·올슨 등 2000~4000달러 상금 대회 출전 잇따라

노르드크비스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문을 닫자 선수들이 미니투어로 몰리고 있다.

19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문밸리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캑터스 투어 10차 대회 출전자 명단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지 않다.

메이저 2승의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와 에이미 올슨(미국), 타이거 우즈(미국)의 조카 샤이엔 우즈(미국) 등이 이 대회에 출전한다.

LPGA투어가 코로나19 확산 탓에 4월 초까지 대회가 모두 취소된 데다 이후 대회도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실전 감각을 가다듬으려는 것이다.

노르드크비스트는 앞서 남자 미니투어에도 출전했다.

캑터스 투어는 참가자들이 낸 돈으로 대회 경비를 제한 뒤 상금을 주는 미니투어다.

1인당 참가비 550달러를 내고 참가하는 선수 숫자에 따라 총상금과 우승 상금이 결정되는 구조다.

우승자 몫은 2000 달러에서 4000 달러 사이다.

PGA투어나 LPGA투어 등 대규모 골프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열지 못하고 있지만, 출전 선수가 많지 않은 캑터스 투어는 올해 들어 9차례 대회를 모두 치렀다. 지난달 7차 대회에는 LPGA투어 통산 2승을 올린 카를로타 시간다(스페인)가 출전해 우승했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3월21일(토)

▲**광주금당산악회** 3월21일(토) 여수 천혜의 비경 연도(소리도) 섬 트레킹, 봉선동 롯데슈퍼앞 03:10, 진월동 식자재마트앞 03:20, 염주체육관 정문 03:30, 한국병원앞 03:40, 문예회관 정문 육교밑 03:50,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04: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3월22일(일)

▲**광주자연보전답사회** 3월 22일(일) 북한산(835.6m) 백운대-만경대-대동문, 염주체육관 05:00, 무등경기장 05:20, 동광주홈플러스 05:4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답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3월25일(수)

▲**광주청록산악회** 3월25일(수) 충북 괴산 산막이옛길 트레킹,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앞 06:30, 교직원공제회관 06:40, 예술회관후문 06: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7:0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주식분할로 인한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20년 3월 1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을 20주로 분할하여 1주의 금액 금5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현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85,000주를 1,700,000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본 주식분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이나 구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 및 구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9일

주식회사 하이솔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바래봉길 247-9
대표이사 박 이 경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허선운(490110-XXXXXXX)
- 최후주소 : 순천시 삼산로 92-50, 108동 1901호 (용당동, 대주피오레아파트)
- 등록기준지 : 전남 순천시 서면 입석길 127

피상속인 망 허선운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0느단132호로 신청하여 2020년 3월 12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3월 19일

- 상속인 : 전우종(701213-XXXXXXX) 순천시 서면 선평길 229
- 신고기간 : 2020. 3. 19. ~2020. 5. 28.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전우종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하병호(671216-XXXXXXX)
- 최후주소 : 전남 곡성군 옥과면 무창2길 24-4

피상속인 망 하병호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0느단204호로 신청하여 2020년 3월 1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3월 19일

- 상속인 : 하형승(940107-XXXXXXX) 전남 곡성군 옥과면 죽림5길 3, 601호 (고운파크맨션)
- 신고기간 : 2020. 3. 19. ~2020. 5. 28.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하형승의 주소

김제 중심지
대지 2,685㎡
건물 446㎡
요촌동 중심상가지대
합필시 공시지가 30억
20억 010-8555-0998
주인 직접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즐거운 문화 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인비저블맨, 정직한 후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3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4관	인비저블맨
5관	1917, 작은 아씨들
9관	다크 워터스, 작은 아씨들, 맘마미아!
7관 씨네커플	스타 이즈 본, 미드나잇 인 파리
8관 씨네커플	비긴 어게인, 세인트 아가타 맘마미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 기획공연-FOCUS
동화음악회 〈책으로 똥을 닦는 돼지〉
4.7(화) 11:00, 14: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GAC 기획공연-FOCUS
엠마뉴엘 체크나보리안 바이올린 리사이틀
4.9(목) 19:3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GAC기획전시
화양연화 : 강남구 초대전
3.27(금) ~ 5.10(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